



發明教室

이렇게해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第2話

美·英發明風土散策

特許制度는 必須不可缺

「特許는 獨占排他的 權利로서 産業의 發展에 沮害되기 때문에 個人에게 그런 權利를 賦與한다는 것은 은당치 않다」는 特許權制度 反對論者도 없지 않으나 「特許라는 것은 지금까지 人類

가 아무도 갖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주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누구에게서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意見이 支配的이어서 世界 모든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特許는 發明에 의해 새로이 社會에 貢獻한 것이기 때문에 獨占權을 주어도 아무런 異論이 있을 수 없다는 데에서 特許制度의 當爲性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獨占權이란 特典이 없었던들 發明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20年이고 30年이고 뒤에나 기대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獨占權을 줌으로써 이 社會에 發明을 빨리 많이 낳도록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獨占事業을 良心的으로 하여 코스트도 떨어지고 그로부터 나오는 利益을 다시 새로운 發明을 創出하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믿는 사람치고 여기에 反對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商標에 대해서도 特許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重要視되고 있다.

英國에는 Trademark Design and Patent Corporation이라는 機關이 있으며 美國에는 Trademark Association이 있으며 두쪽 모두가 Trademark를 알세우고 特許도 그 속에서 다루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이름 있는 會社가 되면 特許를 專擔하는 部署가 있게 마련이어서 이를 特許課 또는 特許部로 編制하여 적게는 2,3名에서 크게는 10名 안팎의 專擔要員을 두고 生産이나 營業의 求心點役割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생겨났다.

賣上의 4% 研究費는 通例

어떤 會社에서는 特許를 獨占權이라 보지 않고 商品의 하나로 쳐서 他社로부터 實施權許與要請에 따라 3% 내지 5%의 로열티를 받고 간단히 使用을 許諾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美國을 비롯한 先進工業國들의 實情이다.

美國의 어떤 會社는 賣上의 4%에 해당하는 年 1,200萬달러를 研究費로 投入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어느 會社이건 賣上의 4%쯤은 모두 研究費로 쓰고 있다는 것이 최근 統計에 나타나 있다.

아메리칸 사이아나미드 케미칼會社의 경우 研究要員이 약 2,000名에 이르며 그 研究施設은 엄청나다.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產室役割을 하는 韓國科學技術院의 研究部門 全員이 行政一般까지 합쳐 약 1,000名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規模를 짐작할 만하다.

E.I. 듀폰社 등도 이에 못지 않게 研究陣을 갖추고 있어 數千件의 特許를 갖고 있으며 나일론 등 化學纖維에 대해서는 물샬틈 없는 獨占權으로 保護하고 있다.

혹시 이에 대해 批難이라도 할나치면 듀폰社는 「當社가 벌어들인 利益을 株主에 配當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비난받을 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當社는 特許로 얻은 利益의 상당 부분을 研究陣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다음 人類福祉에 寄與할 수 있는 偉大한 發明을 하려고 한다. 때문에 결코 罪惡視할 것은 못되며 文化發展上 이만큼 良心의이며 또한 重要的 것도 없을 것이다」고 답변한다.

오랜 전에 듀폰社는 經營이 극히 어려웠던 時節에도 不拘하고 칼로가스라는 化學者를 초빙하여 充分한 돈을 들여 研究시킨 결과 나일론이 誕生되어 오늘날의 繁榮을 가져왔다.

이상한 會社도 다 있어

뉴욕의 Research Corporation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곳은 Patent Pool Company의 하나로써 各大學과 提携하여 大學의 研究成果를 調査하여 特許出願이 가능한 것은 出願하여 權利가

發生하면 그 分野의 會社에 斡旋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權利金의 一部는 大學研究室에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發明家의 研究補助費로 分配한다.

發明家로서는 더 없이 有益한 制度이다. 年間 發明家에게 돌아가는 配分이 100萬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模倣은 禁物, 道德的으로 不容

意匠이나 商標가 그 商品의 人氣를 左右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美國이나 英國에서도 類似與否의 判定이 매우 嚴重하다.

조금만 비슷하다고 생각되어도 엄격히 拒絶한다. 商標의 侵害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엄중하여 不正競爭防止에 큰 役割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意外로 類似한 것이 許可되는 실정이어서 이는 어느 面으로는 出願者를 保護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實은 그와 反對이다. 왜냐하면 繼續的으로 類似한 商標가 자꾸만 나와 나중에는 判別이 쏠려 안되는 경우가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意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와 美國이나 英國이 根本的으로 다르다. 우리의 경우 法律的으로 違反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지만 美國이나 英國에서는 「登錄되어 있지 않더라도 他人이 考案한 것은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事實 特許廳에 登錄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모방하면 침해로 判定된다.

특히 디자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考案해서 이것으로 많은 商品을 팔아 資金을 얻고 다시 그것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기 때문에 가령 法律的으로는 모방이 허용된다 치더라도 道德的으로는 容納되지 않는다」는 것이 美國이나 英國사람들의 생각이다.

「남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限 自由가 保障된다」는 美國人의 思考方式에서 이를테면 女性服같은 것도 各樣各色으로 디자인해서 입는다. 만년필만 해도 그 모양, 색깔이 千差萬別이며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팔리는 社會가 美國이다. 이런 國民性이 發明을 자꾸만 誘導하는 原動力이 아니겠는가 싶다. 〇